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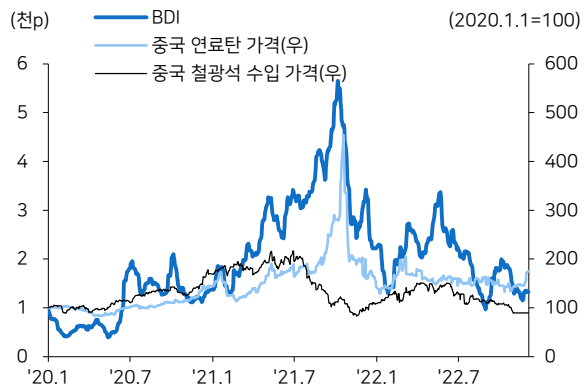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2. 8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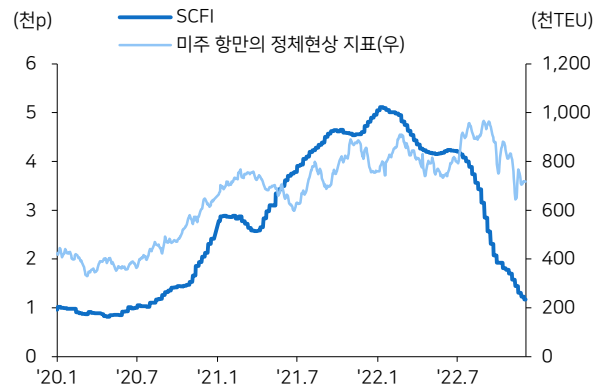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73.0p(+3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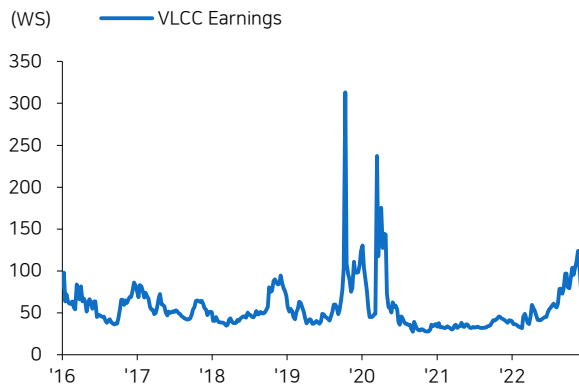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71.4p(-58.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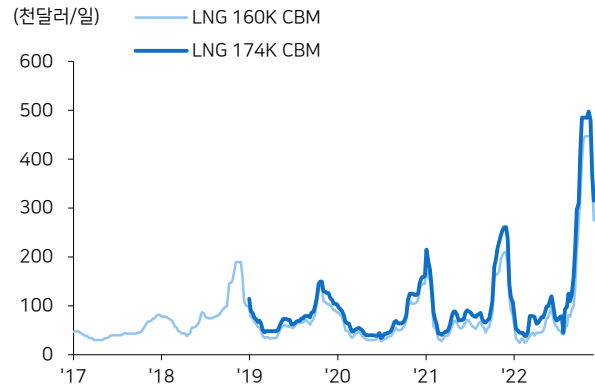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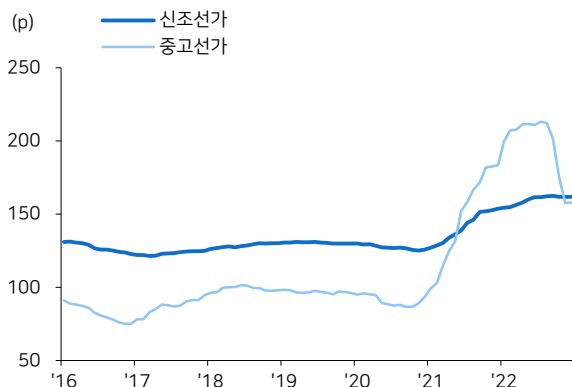
79.6p(-28.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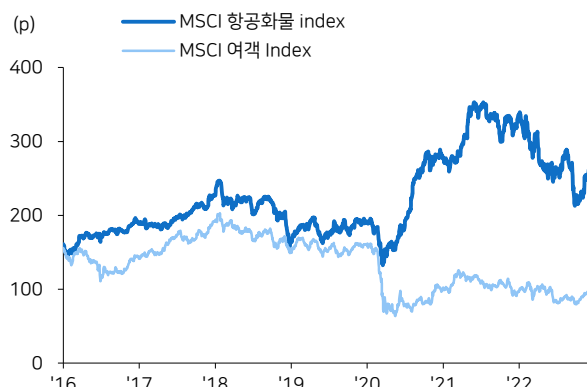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275.0p(-90.0p WoW)  
315.0p(-5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57.8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49.1p(-5.6p DoD)  
98.1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중국,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

중국 방역당국이 COVID-19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10가지 방역지침을 내놨다고 보도됨. 고강도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후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감염자는 7일, 밀접 접촉자는 5일간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함. 다만, 현재 5+3의 해외입국자 격리 규정은 유지됨. 중국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방역정책을 계속 조정 및 완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됨. (경향신문)

## 김포~하네다 항공편 주56회→84회 확대

김포~하네다를 오가는 항공 운항횟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보도됨. 기존 주 56회에서 84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등 4개 항공사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알려짐. (경향신문)

## Economou poised to swoop for tanker newbuildings as China delivery slots open up

그리스 Economou가 약 2.8억달러규모 Suezmax 탱커를 중국 조선소에 발주할 예정으로 보도됨. 지난 11월 157,000DWT급 유조선 4척에 대한 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2022년이 끝나기 전 발주될 수도 있다고 언급됨.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은 생산성이 향상되어 2척은 2024년말, 2척은 2025년초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 언급됨. 선가는 평균 가격인 8,000억달러보다 저렴한 척당 약 7,000억달러 수준일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 Russia seeks to lure Bangladeshi workers to bolster shipyards

러시아가 자국 조선업 지원을 위해 방글라데시 인력을 채용하려 한다고 보도됨. 러시아 조선소들은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공사(BOESL)에 연락해 초기에는 100여명의 인력이 추려졌다고 보도됨. 러시아 고용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Tradewinds)

## "중국, '유가 상한제' 러시아 원유 더 많이 사들일 것"

중국이 가격 상한제 조건이 충족되면 더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됨. 유가 상한제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배럴당 약 20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 글로벌 시장에 원유를 공급할 것으로 설명함. 러시아 유가 상한제가 기존 구매자들의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 쿠팡, 택배 사업 재도전... "입점 소상공인 상품도 배송 가능"

쿠팡이 자회사를 통해 택배 사업에 재진출했다고 보도됨. 배송인력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동하면서 일반 택배업인 '3자 물류'(3P)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 쿠팡은 지난 2021년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바 있음. 3자 배송 수수료로 새로운 수익원 확보도 예상된다고 알려짐. (뉴스1)